

연예뉴스 스테이션

이진, 20일 하와이서 6세 연상 금융인과 결혼



핑크 출신 배우 이진(35·사진)이 20일 미국 하와이에서 6살 연상의 미국 금융업계 종사자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하와이 현지 교회 목사의 주례 하에 일가친척들만 함께 하는 비공개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며 식후 하와이에 머물며 신혼여행을 갖는다. 이진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예비신랑을 만나 1년여 교제 끝에 결혼에 이르렀다. 예비신랑은 한국 태생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자상한 성품에 환절한 호남형으로 알려졌다. 이진은 미국 뉴욕에 신집살림을 차리고 한국을 오가며 연예활동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진은 1998년 걸그룹 핑클의 멤버로 데뷔했고, 2005년 연기자로 전업해 SBS '왕과나', MBC '빛나는 로맨스'에 출연했다.

26일 황정은 결혼식 '하이킴' 인연 이순재 주례

26일 황정은(31)의 결혼식에 배우 이순재가 주례로 나선다. 16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황정은의 결혼식에서 이순재가 주례, 김준수와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축가를 부른다. 황정은과 이순재는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킴'에서 인연을 맺었다. 황정은은 이날 4살 연상의 철강회사 거압코아 이영돈(35) 대표와 결혼한다.

안재욱·최현주 부부 득녀 "건강할 잘 키울 것"

뮤지컬에 함께 출연하며 결혼한 안재욱·최현주 부부가 16일 딸을 얻었다. 이날 안재욱 소속사 EA&C 측은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이다. 부부가 첫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행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욱은 소속사를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배우로서 좋은 활동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작년 6월1일 결혼했다.

레이디스 코드, 아픈 기억 묻고 24일 컴백

교통사고로 멤버를 잃은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가 24일 싱글 '미스터리'를 발표하고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레이디스 코드의 컴백은 2014년 '키스 키스' 이후 약 2년만이다.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멤버들의 빈자리는 남겨둔 채 주니, 애슐리, 소정의 3인조로 활동한다. 소속사 일광 플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그간 남은 멤버들은 힘든 시간들을 함께 극복하며 열심히 컴백을 준비해 왔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판단했으며, 멤버 충원 없이 3인조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광수, 한중 공동 공익광고 캠페인 모델 발탁

연기자 이광수가 한국과 중국의 공동 공익광고 캠페인에 모델로 발탁됐다. 16일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광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중국 CCTV가 공동 제작한 한중 공익광고에 모델로 참여해 현재 국내 TV와 중국 CCTV 15개 주요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다. 광고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공익광고를 최초로 중국 14억 인구에 노출함으로써 드라마, 예능을 넘어 광고 분야까지 한류를 확산하고, 아시아 공통 가치관인 '효'를 주제로 양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DNA 코리아' 고성 편 끝으로 시즌4 마무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만들기 일환으로 2012년부터 강원도와 ㈜씨에이치이엔티(대표 박철환)가 함께한 'DNA 코리아' 프로젝트가 올해 시즌4를 맞으며 1일 고성 편 방송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는 평창과 정선, 고성, 인제가 동참하면서 강원도 대부분의 시, 군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특히 MBC를 통해 총 9회(재방송 포함)에 걸쳐 전국 곳곳에 방송됐고, 15개 매체에 약 100여건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높은 홍보효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음악 랭킹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시간을 달려서	여자친구
2	어디에도	엠씨 더 맥스
3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4	Rain	태연
5	잊어버리지마 (Ft. 태연)	Crush
6	Dream	수지, 백현
7	OOH-AHH하게	TWICE
8	걱정말아요 그대	이적
9	니가 하면 로맨스 (Ft. 다비치)	케이윌
10	소녀	오혁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리멤버’ ‘시그널’ 잘 나가는 장르 드라마의 비밀

두 드라마의 경쟁력 3가지

슈퍼 갑질 vs 을의 분노…선악 대립 극명
과잉기억·시공초월 등 판타지 요소 가미
뻘한 러브라인 대신 끈끈한 동지애 초점

‘잘 나가는’ 장르 드라마는 다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채널의 드라마 가운데 각각 시청률 1위인 SBS ‘리멤버’와 tvN ‘시그널’이 기존의 장르물과 차별화한 매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란히 법정 및 수사물을 표방한 두 드라마는 새로운 극적 장치를 추가해 장르물의 한계를 넘어섰다. 두 드라마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3가지다.

●극명한 선악 대결

살인누명을 쓴 아버지를 위해 변호사가 된 아들(유승호)이나 장기 미제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김혜수·조진웅)들은 ‘강력한 힘’에 맞서 싸운다. 재벌가와 그들이 매수한 내부 고위층



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법을 가법게 무시할 정도로 극악무도하다. 힘없는 이들은 답답할 정도로 당하기만 한다. 시청자의 공분과 울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극적 장치다.

여기에 ‘슈퍼 갑질’과 그들에 대한 ‘을’의 분노를 선과 악으로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긴장감을 더한다. 극 초반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을 자아내다가도, ‘을의 반격’을 통해 통쾌함을 안긴다. 팍 막혀 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일명 ‘사이다’ 콘텐츠로 불린다.



●판타지

다소 현실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는 이만한 게 없다.

‘리멤버’에서 유승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보고 듣는 것을 모두 외우고 기억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기억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그럴듯한 장치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여기에 기억력 감퇴와 상실의 원인인 알츠하이머증후군까지 연결하며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다.

‘시그널’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무전기도 이색적인 장치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건전지도 없는 무전기를 통해 주인공들이 시간을 초월해 교감하면서 흥미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

●동지애

두 드라마에는 남녀간의 로맨스가 없다. 일반 드라마의 90% 이상이 주인공들의 러브라인으로 채워져 있지만, 두 드라마는 이를 배제했다.

‘리멤버’는 총 20부작 가운데 한 회에 한 두 장면 정도 유승호와 박민영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그쳤다. 굳이 러브라인이 필요 없는 설정이고, 극의 전개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분량을 없앴다. 대신 유승호와 박성웅이 서로 의지하는 동료이자 인생 선후배로서 우정을 주고받는 모습을 강조했다.

‘시그널’도 마찬가지다. 김혜수와 조진웅, 김혜수와 이재훈 등 ‘남녀’의 이분법적인 설정을 뛰어넘어 끈끈한 동지애를 그리면서 호평을 얻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용관 집행위원장, 결국 BIFF 떠나나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 총회 연기…자동 해촉 가능성
영화계 집단 보이콧 등 강한 반발 예상

부산국제영화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악의 경우 영화계의 ‘집단 보이콧’ 등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재선임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25일 이 위원장의 재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주관하는 부산시가 총회 날짜를 연기했다.

이렇게 되면 임기가 이달 25일까지인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촉된다. 부산시가 이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정기총회를 25일 이후로 미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이후 영화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난 속에 여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이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16일 “정기총회에서 재선임 투표를 진행할 경우 위원들의 표가 나뉠 수 있다”며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는 우려로 부산시가 총회 날짜를 연기해 자연스럽게 이용관 위원장의 임기를 끝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용관 위원장의 해촉 가능성이 13일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16일 오후까지도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어떤 공식 입장과 전달하지 않은 상황.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몰이부터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우려 속에 이춘연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이사장과 류승완 감독 등 부산국제영화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영화인 5명은 11일 서병수 부산시장을 만나 ‘이용관 위원장의 검찰 고발 취하’와 ‘위원장 재선임’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대표는 “이용관 위원장이 연임되지 않으면 의도가 어떤든 정치적 탄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했다”며 “아직 이 위원장의 해촉 여부가 공식화되지 않았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이용관 위원장이 이대로 물러나면 영화계의 집단적인 영화제 보이콧 가능성 등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비대위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를 비롯해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영화계 거의 모든 단체가 소속된 만큼 이들이 대거 영화제 참여를 거부한다면 21회째를 맞는 올해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지 미지수다.

한편 이용관 위원장은 2007년 2월24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위촉돼 3년간 활동했고 이후 2015년까지 6년 동안 집행위원장을 맡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키워왔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16일(한국시간) 열린 제58회 그래미 시상식은 모두에게 축제였다. 수상의 환희가 넘쳤고, 떠난 자에 대한 헌정의 무대도 마련됐다. 왼쪽 사진부터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테일러 스위프트, 베스트 랩 앨범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말하는 켄드릭 라마, 데뷔 7년 만에 처음 그래미에서 수상하고 축하공연을 하는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 ‘그래미의 여왕’으로

‘올해의 앨범’ 역대 첫 2회 수상 여가수로
켄드릭 라마 5관왕, 저스틴 비버 첫 수상

테일러 스위프트가 다시 한 번 그래미를 품었다.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미국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58회 그래미 시상식에



4일 개봉해 16일까지 24만 관객을 모았다.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홍행작’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영화가 가진 개성과 상영 환경을 고려하면 ‘이변’의 인기다. 극장가 돌풍의 주역

등 5관왕을 차지한 켄드릭 라마다.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으면서 온갖 말썽으로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저스틴 비버는 ‘웨어 아 유 나우’로 ‘베스트 댄스 레코딩’ 부문을 수상, 데뷔 7년 만에 처음 그래미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인 수상자도 나왔다. 녹음엔지니어인 사운드미러코리아 황병준 대표가 녹음한 라흐마니노프의 ‘베스퍼스’ 음반이 ‘베스트 합창 연주’ 부문을 수상했다. ‘베스트 합창 연주’는 지휘자에게 상이 주어지지만, 음반작업에 참여한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도 그래미 데이테비이스에 수상자로 기록된다. 황 대표는

2012년 ‘클래식 부문 베스트 녹음기술상’으로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59년 시작된 그래미 시상식은 전미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주최하는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며, 영화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비견된다. 음반제작자, 프로듀서·엔지니어 등으로 이뤄진 NARAS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음악적 역량, 예술성·연주·녹음·역사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수상자를 결정해 권위를 인정받지만, 비영리 음악과 가수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운틴’의 34만 관객 기록까지 넘보고 있다.

필름영화의 매력도 상당하다. 개봉 초반 서울 주요 극장에서 진행한 필름 버전 상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이에 배급사는 서울 상영횟수 확대와 더불어 24일부터 3월 9일까지 부산과 대구에서도 추가 상영한다.

배급사 아트하우스는 “필름카메라로 촬영한 ‘캐롤’은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색감과 표현으로 관객의 관심을 얻는다”며 “1950년대 뉴욕의 모습이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평가도 많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